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통합기구 구성



우영균 교수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이사/사무총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대한정형외과 연구학회 회장

1. 서언

가톨릭 병원 설립의 확산과 함께 출범하게 된 한국가톨릭병원협, 가톨릭의사협, 가톨릭간호사협, 가톨릭약사회는 1967년 가톨릭병원협회의 출발을 시초로 지금까지 최장 37년이라는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보면 각 분협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협회가 전국 가톨릭병원 및 가톨릭의료인의 구심체가 되어 이념화를 이루고 하느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협회가 하나되어 공동의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가톨릭병원협회는 2003년 이사회에서 업무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협회내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새로운 협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 등을 통합하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구성하여 전 가톨릭의료인이 일치를 이루어 치유봉사를 통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고 수준의 시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본 사업을 공동 인식차원에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목적

- 가) 국내 전 가톨릭의료업 종사자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가톨릭의료 발전에 기여 한다.
- 나) 가톨릭의료인의 이념실천의 구심체적 역할을 만들어 내어, 하느님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인 성화를 위한 신앙활동을 강화한다.
- 다) 복지분야, 기업의 문화, 수익모델개발, 의료선교분야 등에 공동사업개발 및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
- 라) 가톨릭병원 및 의료인 특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효율화를 이룩한다.
- 마) 대외창구 일원화를 이루고 대정부 Opinion Maker로서의 위상을 이루어 국가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협회현황

가) <참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협회의 운영 실태는 회원간 친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활동과 사업성과에서 다른 종교 및 비종교의 유사 협회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이념적으로 비중을 두는 가톨릭의료의 특화요소 색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구심점의 기능은 약화되어 회원에 대

〈참고〉 가톨릭의료인 협회별 현황

구분	설립연도	회원수 (명)	현황	비고	
병원협	1967(37년)	32	- 가톨릭병원으로 구성(가톨릭 재단 설립 병원) - 회원증가 답보 상태. -예산규모: 년 2~3억 원. - 주요사업: 연수/세미나/이사회/의료선교	- 업무체제: 기초적인 수준 - 홈페이지/협회지 운영	
의사협	1969(35년)	1,700	- 교구별 지부 구성 - 집회 년2회, 피정 실시, 년 1회 협회지 발간 등	- 예산 회원별 회비, 행사시 예산 배분 회원별 각출	중앙 및 지부활동
간호사협	1979(25년)	2,100	- 교구별 지부 구성 - 피정/보수교육 등	- 홈페이지/협회지 운영 - 예산년 3천여만 원	중앙 및 지부활동
약사협	1983(11년)	6,000	- 교구별 지부 구성 - 집회 년 1~3회 실시	- 봉사활동 일부 회원 참여	지부별 활동 중

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흡인요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심히 우려해야 할 요소들이라 판단된다.

나) 따라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우리 가톨릭의료인은 병원에서의 환자진료라는 기본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참모습을 갖추도록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4. 사업 경과보고

- 가) 가톨릭병원협회 '03년 이사회(秋)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업안을 검토함
- 나) '04년 2월 각 회별 의견수렴 (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동참 함의), 호스피스협회는 공식입장 표명이 없었음
- 다) 가톨릭병원협회 '04년 2월 이사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함. 기구구성과 함께 법인화 및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산하기구로 등록하는 추진계획이 가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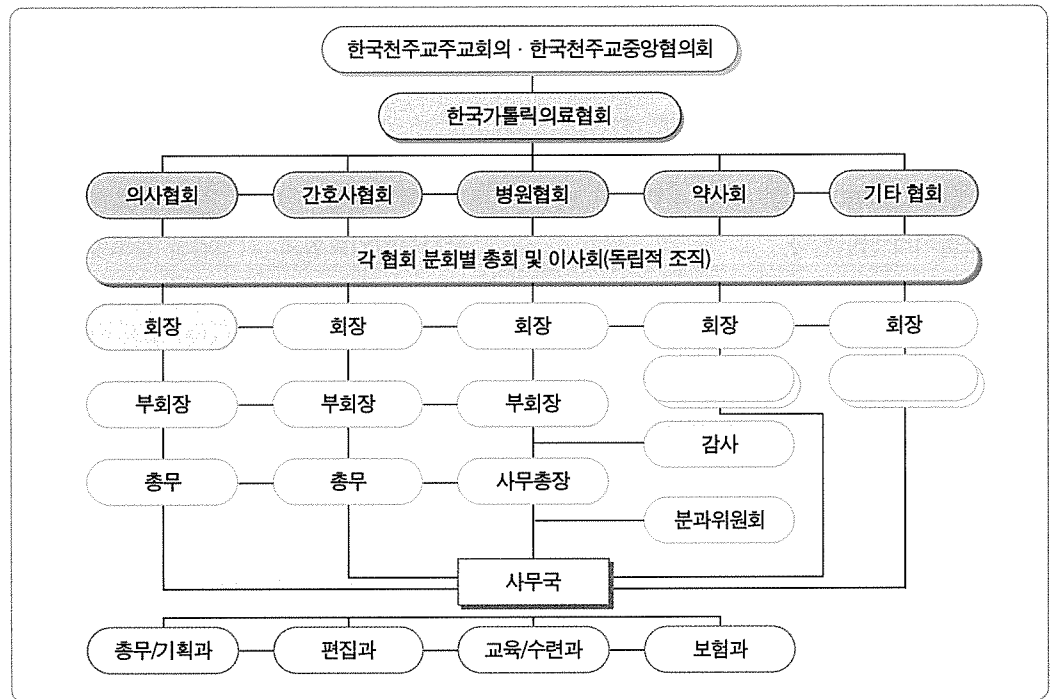
5. 과제 및 운영

구분	내역
가) 과제	- 가톨릭의료인 이념실천 강화 - 가톨릭병원 각 지역별 포스트 병원화 - 가톨릭의료기관 및 의료인 역량강화 - 홍보/대외교류/교육/연수 등 공동대처 - 가톨릭의료인 경쟁력 제고 - 회원병원간 제휴, 상호 컨설팅 강화 - 가톨릭의료 이념사업 창구역할
나) 기구구성	- 병원협, 의사협, 간호사협, 약사협 등 통합기구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출범 - 분야별 분협회는 자체사업 독립성 유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회' 산하 기구화 및 법인화 추진

구분	내역	
다) 기구별 역할	① 의료 협회	- 대내외 가톨릭의료기관 의료인 창구화 - 대외적 Opinion Maker 대표기구(정부/사회/조직) - 공동사업 개발 추진
	② 각분 협회	- 각 분협별 자체사업/활동 독립성 유지 - 분협회별 상호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 공동사업 개발 및 행사 적극 동참
	③ 사무국	- 분협별 사무행정 업무지원(행사/발간/회원관리 등 업무전반 지원) - 각분협별 대외장구 역할(대외신뢰 향상, 회원편의 증대)
라) 임원구성	- 협회장: 가톨릭병원협회장이 겸직(당연직) - 부회장: 병원협회 부회장 및 각 분협회 회장으로 구성 - 이사회: 병원협회 임원 및 각 분협(의사협, 간호사협, 약사협 등) 선임이사로 구성 - 감 사: 이사 구성원 중 2명 선임	
마) 협회사무국 인원 보강	① 인원보강 결정	- 각 분협별 업무량 분석 후, 필요성 검토 - 보강여부: 이사회 결정에 따름(필요시 사원급 1명 총원)
	② 인원보강 비용배분	- 인건비: 협회 신입직원규정에 따름 - 인건비 부담: 각분협별 일정비율별 배분

※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규정에 포함코자 함

6. 편제



7. 주요 추진사업

가) 발간업무

① 각 분협회별 발간업무는 극히 기본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다. 공동체의식 개발과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언론의 기능 활성화를 위

해 협회지 및 매체의 발간이 요청된다.

- ② 현행 각 분협회별로 발간되고 있는 협회지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안을 검토, 업무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나) 교육/연수사업

- ①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일반기업 및 업계의 경쟁기관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다.
- ② 경쟁우위를 점하고 이념실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소회원 병원의 컨설팅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시스템 구축과 직책과 신분을 넘어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세미나/학술대회

- ① 세미나/학술대회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바이고 기존의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보다 알차고 실용적인 행사로 승화할 수 있도록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가능한 해외행사 및 대외교류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라) 수익모델 개발

- ① 사업에는 필히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협력만 한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자체적 기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협회에서 사업안으로 추진 중인 보험창구 개설과 협회지 발간업무는 수익모델의 좋은 사례이다.
- ②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념사업 활성화

- ① 현행 병자의 날 행사를 공동참여행사, 국가 기념일화, 형식이 아닌 실제 환자를 위한 행사로 내용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 ② 생명존중/윤리관련 공동사업, 가톨릭의료봉사 Mission 실천 및 본당연계한 봉사 및 협조를 강화한다(가정간호사, 병원홍보 등).
- ③ 의료혜택 사각의 오지를 선정, 해외의료선교를 실천하며 행사에는 전 회원병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바) 기타

- ① 홈페이지 개설-각 분협회별 운영(홈페이지가 없는 분협회도 있음) 중인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뉴스, 정보교환, 업무안내 등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각 분협별 사이트를 운영하여 분협회별로 업무효율화를 이룬다.

8. 결어

본 사업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또 성과를 이루는 데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협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환경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전문인들은 심기일전하여 환자진료의 기본업무에 사명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이고 소속한 기관의 경영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모두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많은 시너지가 기대되는 의료협회, 각 분협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전 가톨릭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과 건승을 기원한다. 🙏